



나울스나이퍼 VS 드래곤스타…이복형제 매치

트리플 크라운 시리즈 예선경주
추입 강한 너트플레이 다크호스

19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리는 제36회 스포츠서울배(L)는 암수 상관없이 국산 3세마들이 출전해 1400m에서 겨루는 레이스다. 국산 최강 3세마를 선발하는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 시리즈의 예선경주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는 장주열 기수와 승부사가 선발 승부 수로 경주 초반부터 끝까지 시원시원한 질주를 펼친 끝에 우승했다.

●나울스나이퍼(수, 한국 3세, 레이팅 61, 승률 57.1%, 복승률 71.4%)

청담도끼의 부마로 유명한 투아너앤드서브의 자마다. 이번 출전마 중 레이팅이 61로 가장 높다. 1000~1400m 단거리에 출전하다가 3세가 된 올해 2월부터 1800m 장거리에 도전했다. 당시 경주

시작과 동시에 선배 말들을 제치고 선두 자리를 꿰차더니 끝까지 선두를 유지하면서 5마신 차승리를 거두었다. 지난해 2세마로서 쥬비나일(2세 최고마 선발 경주) 시리즈 중 브리더스컵(G2) 1400m에 참가했으나, 스피드영 등 부경마들의 기세에 눌려 4위에 그쳤다. 그래도 출전한 경주에서 모두 순위상금을 획득하는 등 꾸준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라온더컬리티(암, 한국 3세, 레이팅 54, 승률 50.0%, 복승률 50.0%)

홍행보증 수표라 불리는 라온은 경주마다. 데뷔 이전부터 큰 기대를 받았지만 데뷔전에서 12두 중 10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올렸다. 그 이후 4위, 6위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다가 지난해 12월 1200m 경주에서 13마신 대차의 승리를 했다. 대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이후 출전한 두 경주에서 연이어 우승했다.

●자이언트펀치(수, 한국 3세, 레이팅 42, 승률 33.3%, 복승률 33.3%)

지난해 8월 루키 스테이크스(Rookie Stakes@서울)에서 우승했다. 한 달 후 출전한 문화일보배(L)에서는 경주 전개가 매끄럽지 못해 후미에서 레이스를 시작했지만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폭발적인 추입으로 3위까지 올라섰다. 12월 브리더스컵(G2)에서는 16두 중 10위에 그쳤지만, 올해 1월 첫 1800m 장거리에서는 막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4위로 들어왔다.

●드래곤스타(수, 한국 3세, 레이팅 47, 승률 28.6%, 복승률 42.9%)

투아너앤드서브의 자마로 이번에 출전하는 나울스나이퍼와 이복형제이다. 71.4%의 높은 연승률을 자랑한다. 대상경주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전마 중 가장 빠른 1400m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경주 기대주다. 선입 능력은 물론 막

판 스파트 능력도 뛰어나 중·단거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전한 1400m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하다가 우승했다. 데뷔부터 지금까지 문성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꾸준히 조교를 통해 호흡을 맞추었다.

●너트플레이(수, 한국 3세, 레이팅 55, 승률 42.9%, 복승률 57.1%)

1월 29일 서울 6라운드 경주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올린 주인공이다. 당시 10마리 중 7번째로 4코너에 들어섰으나, 결승선이 50m도 남지 않은 지점부터 위력적인 추입을 보여주며 우승했다. 지난해 12월 경주퇴역승용마 '석세스스토리' 기념 특별경주에서도 진로가 막혀 4코너까지 8~9위에 머물렀지만 뒤쪽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며 기회를 엿보았다 틈새를 포착해 파고들어 순식간에 8위에서 1위까지 올라섰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마여왕 김혜선 기수의 ‘부경 3위’ 질주

여성 첫 대상경주 우승 등 각종 기록
조교사 교육 받고 인생 2막 밑그림

경마는 여성의 진출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경마가 태어난 서구에서도 여성 기수나 조교사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미국에서는 1970년 켄터키데비 출전 최초의 여성 기수 다이언 크루프, 1993년 최초 트리플 크라운 시리즈 우승 여성기수 줄리 크론 등이 대표적이다. 2015년에는 호주의 미셸 페인 기수가 세계 최고의 경마대회 중 하나인 멜번컵에서 대회 155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우승자로 탄생했다.

한국의 경우 1975년 3월에 기수 면허를 받은 이우례 기수가 최초지만 6개월 만에

부상으로 은퇴하면서 본격적인 여성기수의 활약은 2000년대부터 시작됐다. 2001년 데뷔한 이금주 기수와 이신영 기수는 사실상 최초의 한국 여성기수로 꼽힌다. 이금주 기수는 은퇴 후 대학교수로, 이신영 기수는 2011년부터 첫 여성 조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20년이 지난 현재 서울, 부산경남, 제주 경마장에는 총 10명 내외의 여성기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기수는 부산경남서 활동하는 김혜선이다.

2009년 데뷔한 김혜선 기수는 2013년 여성 기수 첫 프리 선언, 2017년 여성 최초 대상경주 우승, 2021년 300승 달성, 2022년 하루 3개 국제교류경주 우승 등 ‘여성 최

초’라는 타이틀의 각종 기록을 세웠다. 덕분에 ‘여자 경마 대통령’, ‘경마의 여왕’이라는 칭찬을 듣고 있다. 특히 2017년 코리안 오크스 대상경주에서 여성 최초로 우승 할 때는 단승 56배, 복승 475배, 삼복승 1만 7274배의 고액 배당을 터트려 얼마나 어려운 경주를 승리했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김혜선 기수는 또한 부산경마 1호 기수 부부이다. 그는 2019년 6년 후배이자 8살 연하인 박재이 기수와 결혼했다. 김혜선 기

수는 결혼 이후에도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결혼 이듬해인 2020년 아이를 낳았지만, 출산 7개월 만에 경주로에 복귀해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슬하에 4살짜리 아들이 있는 웅김밥이지만, 김혜선 기수의 최근 1년간 성적을 보면 부경기수 중 단승 7위(40승) 및 승률 7위(11.4%)로 탁월하다. 올해는 승률이 16.1%

(부경 3위)에 달한다.

올해도 승승장구하던 김혜선 기수는 2월 초부터 한동안 경마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교사로서 인생 2막에 도전하기 위해 활동을 잠시 중지하고 조교사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들과 함께 할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 김혜선 기수는 “내가 여성이라는 게 부각되기보다는 그저 기수로 불리며 차별 없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프로야구 기록표

〈시범경기·16일〉

•KIA-기움
2차전 (기움 1승1패)

고척 KIA 0 0 0 2 0 0 0 0 0 2
기움 0 0 0 0 0 1 0 2 X 3
2시간44분
관중 3,843

▲경승타=김건희(8회 2사 만루서 중전 안타) ▲홈런=김구성(1회 1점 이승호) ▲2루타=김도영(4회) 김태진(8회) 박주성(6회) 황대민(7회) ▲삼진=김태진(8회) ▲도루=이정후(1회) ▲실책=김태진(8회) ▲도루=이정후(1회) ▲심판=김성현 배병자 비기록 김선수

•KT-한화

2차전 (한화 2승)

대전 K T 0 1 0 2 0 0 0 0 0 3
한화 1 0 3 0 1 0 0 0 0 5
2시간46분
관중 1,160

▲경승타=오그라디(3회 2사 1루서 우월 홈런) ▲홈런=오그라디(2회 3점점 홈런) 장성우(1회) 황대민(1회) 정민호(1회) 박준호(1회) 이재민(1회) ▲도루=문성민(8회) ▲삼진=정민호(3회) 박준호(3회) 김민우(1회) 최재우(2회) 박상민(5회) ▲실책=황대민(7회) 김경현(7회) ▲심판=관중령 자장구 전일 수 유덕현

•SSG-롯데

2차전 (롯데 1무1패)

사직 SSG 2 0 1 0 0 0 0 0 0 3
롯데 0 0 0 0 1 2 0 0 0 0 3
2시간58분
관중 1,500

▲경승타=임을 ▲홈런=송선수(1회 1회 정나윤) A 3점타=노진혁(8회) ▲2루타=박성현(3회) ▲3루타=박성현(3회) ▲4루타=박성현(3회) ▲5루타=박성현(3회) 이재현(9회) ▲심판=함지웅 문동근 나경남 구령원

•두산-NC

2차전 (NC 1승1패)

두산 0 0 0 0 0 0 0 0 0 0
NC 0 0 0 1 2 0 0 0 X 3
3시간 0분
관중 280

▲경승타=한석현(4회 2사 1루서 중전 안타) ▲3루타=안중열(3회) ▲2루타=서호철(5회) ▲실책=송명기(1회) 이재현(9회) ▲도루=안재현(2회) 김인태(4회) 박유경(4회) ▲주루타=한석현(4회) 정진기(5회) ▲경승타=김재현(9회) ▲도루=김재현(6회) 김민태(6회) 이재현(9회) ▲삼진=김민태(7회) 정진우(9회) ▲심판=김재현 이정재 경승

•LG-삼성

2차전 (LG 1승1패)

대구 L G 0 0 0 0 0 1 1 2 1 0 5
삼성 0 0 0 0 0 0 2 0 0 0 2
2시간55분
관중 750

▲경승타=정성주(1회) 무사 2루서 잠자기 안타) ▲홈런=박재원(1회) 정필준(3회) ▲2루타=이재현(1회) ▲2루타=손현영(2회) 이천우(7회) 오재현(8회) ▲3루타=송천우(2회) ▲도루자=송현우(3회) 이재승(6회) 신민재(8회) ▲병살타=송천우(7회) ▲목투=이상민(9회) ▲심판=송명호(3회) 이재승(1회) 이재현(6회) 신민재(8회)

•해외축구

〈16일〉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브라이튼 1 - 0 크리스탈팰리스 브렌트포드 2 - 0 사우스햄튼

경기예고

주말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 2023 〈4라운드〉

포항 〈포항〉 강원 〈광주〉 인천 〈인천〉

18일 오후 2시, JTBC G&S

제주 〈서귀포〉 서울 〈인천〉

19일 오후 4시, JTBC G&S

울산 〈울산〉 수원FC 〈수원〉

주말 프로야구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시범경기

KT 〈대구〉 삼성 〈사직〉 롯데 〈롯데〉

18일 오후 1시, SPOTV

두산 〈광주〉 KIA 〈창원〉 NC 〈NC〉

오후 1시, MBC SPORTS+

키움 〈대전〉 한화 〈한화〉

오후 1시, SBS SPORTS

주말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GS 카텍스 〈장충체육관〉 도로공사 〈

17일 오후 7시, KBS N SPORTS

IBK 기업은행 〈화성종합실내〉 페퍼저축은행 〈

18일 오후 4시, SBS SPORTS

흥국생명 〈인천삼산월드〉 현대건설 〈

19일 오후 4시, SBS SPORTS

주말 프로농구

•신한은행 SOL 2022-2023 WKBL 〈챔프 1차전〉

우리은행 〈아산이순신〉 BNK 씽 〈

19일 오후 3시25분, KBS1

•2022-2023 SKT 에이玷 KBL

가스공사 〈대구〉 SK 〈울산동천〉 KCC 〈

17일 오후 7시, SPOTV

삼성 〈잠실실내〉 LG 〈원주종합〉 캐롯 〈

18일 오후 3시, SPOTV ON

인삼공사 〈안양실내〉 KT 〈

19일 오후 5시, SPOTV ON

삼성 〈잠실실내〉 SK 〈수원〉 현대모비스 〈

19일 오후 5시, SPOTV

LG 〈청원〉 DB 〈

19일 오후 7시, SPOTV